계양팀 베테랑과 양주팀 신예들이 똘똘 뭉쳤다

수도권 2강의 결합체…김포팀을 주목하라

경륜 황제 정종진과 한솥밥 먹었던
계양 황승호·김형완·정재원 등 주축
인치환·공태민 등 양주팀 주력 가세
평균 33세·신구 조화·결속력 강점

정종진 황승호 김형완 정재원

올해 7월 탄생한 경륜 신생팀 김포팀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7월 3일 공식 출범한 김포팀은 '경륜 황제' 정종진(20기)을 중심으로 계양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황승호(19기), 김형완(17기), 정재원(19기) 등이 주축이다. 여기에 양주팀 에이스 인치환(17기), 정정교(21기)와 차세대 수도권 기대주인 공태민(24기)까지 가세했다.

김포팀의 선수구성은 꽤 파격적이다. 양주팀 간판선수들이 대거 이적하면서 사실상 수도권을 대표하는 두 팀이 합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계양팀은 주전들의 노쇠화에 유독 마크형 선수들이 몰린 것이 흠으로 지적됐다. 이웃이자 라이벌인 동서울팀과 달리 젊은 선수의 유입도 최근 2년간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반대로 양주팀은 자력승부형이 많고 24기 공태민이 돌격대 역할도 가능하나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리더의 부재와 체계적인 관리 등에서 아쉬웠다. 계양 양주, 두 팀의 만남을 통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여기에 문희덕(13기), 원신재(18기), 엄희태(23기), 왕지현(24기), 최석윤(24기)까지 가세해 짜임새를 더했다.

김포팀의 강점은 평균 연령 33세로 비교적 젊고, 전성기의 고참과 뒤를 받쳐주는 신예들이 조화를 이뤘다는 점이다. 또한 '마음이 맞는 선수들이 뭉쳤다'라고 표현할 만큼 결속력, 조직력 등도 그 어느 팀에게 뒤질게 없다는 평가다. 역대 수도권 최강자들이 모두 새로운 팀을 창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조호성(11기)은 초대 경륜황제인 엄인영(4기)이 있던 팔당팀에서 하남팀으로 분가하면서 자신의 아성을 쌓았다. 정종진 역시 이번 김포팀을 통해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갖추었다. 이는 경상권 연대를 비롯해 연합 세력인 충청권, 동서울팀에게도 압박을 주기 충분하다.

베테랑과 신예가 조화를 이룬 효과도 금방 나타났다. 공태민은 지난주 금요특선급에서 강력한 입상후보인 최래선(22기), 정재완(18기)을 따돌리며 2위를 기록했다. 200미터 기록이 무려 10.94초. 경륜에서 자력으로 10초대를 기록할 경우 특급 선수로 평가받는다. 공태민은 데뷔 후 처음으로 10초대를 기록해 의미가 컸다.

엄희태 역시 김포팀에 합류 후 창원에서 첫 입상(2위)했고, 지난주 광명에서 데뷔 첫 승을 기록하며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우수급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던 왕지현을 비롯해 원신재, 엄정일(19기), 선발급의 강병석(23기) 역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예상지 '최강경륜'의 박창현 발행인은 "신생팀이 초기에는 대부분 훈련에 적극적이라 성적에서도 반짝 실적을 거두기 마련이지만, 김포팀은 워낙 구성원들의 면면이 뛰어나고 짜임새가 있어 롱런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쌀쌀해진 가을 경정 '플라잉 경계령'

수온 낮아져 여름보다 경주 속도 UP
이진우·이승일·윤영근·김도환 등
상승세 선수들 잇따라 위반 아쉬움

경정은 기본적으로 모터가 받쳐주어야 선수들이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모터 못지않게 선수의 기량도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다. 가장 우선순위가 스타트 능력이다. 경정은 대부분 1턴 마크에서 승패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1턴 전개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스타트를 빨리 끊어야 한다. 선수들은 스타트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실제로 해가 갈수록 선수들의 평균 스타트 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계치에 가까운 스타트를 끊을수록 그만큼 플라잉(사전 출발) 위험도 높아진다.

경정 스타트는 0초부터 1초 사이에 스타트 라인을 통과해야 하는데 0초보다 먼저 스타트 라인을 통과할 때 플라잉(F, 사전 출발)이라 한다. 플라잉은 선수 본인 뿐만 아니라 경륜경정총괄본부에도 막대한 손해를 미친다. 플라잉 위반 선수에 관한 주권을 모두 환불해야 하고 선수도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최근 플라잉 위반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35회차에서는 한창 잘나가던 이진우(13기)가 19일 목요 3경주에서 플라잉 위반을 했고, 33회차 11일 수요 9경주에서는 이승일(5기)이, 32회차 5일 목요 6경주와 10경주에서는 윤영근(1기)과 김도환(5기)이 각각 한 차례씩 플라잉 위반을 했다. 거의 매 회 차마다 플라잉 위반자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위반자 대부분 최근 기세를 서서히 올리고 있던 선수들이어서 더욱 아쉽다.

플라잉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날씨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확연히 선선하게 느껴지는 가을 날씨라 수온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여름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경주 스피드가 다소 올라가고 있다. 때문에 평소처럼 스타트를 끊으면 생각보다 빨리 스타트 라인을 지나는 상황이다. 더구나 강한 등바람도 심심치 않게 불어 스타트에 영향을 주고 있다.

플라잉은 위반을 한 날부터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다시 위반을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하지만 그 기간에 또 플라잉을 하면 자동으로 주선보류 1회가 추가된다. 전반기에 우진수, 이창규, 한성근, 하서우, 박민영, 한준희가 플라잉 누적으로 주선보류를 받았고, 후반기에도 벌써 임정택, 이진우가 누적 위반으로 주선보류가 예약된 상태다.

플라잉 유예기간에 걸려 있는 선수들은 상당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스타트 승부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 열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광명시와 공동으로 스피돔 페달광장에서 '2019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를 개최하고 있다. 21일에 이어 10월 5일과 19일에 열리는 이번 나눔 장터는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스피돔 시설 개방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경제 기업, 마을공동체, 청년·여성창업팀 등 20개 기업이 참여하며, 장터 기간 동안 제품 홍보·전시,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문화예술 공연도 열린다.

2019 우수종사원 변화관리 교육

제주서 열린 우수종사원 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제주에서 '2019 우수종사원 변화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경륜경정 고객 접점에 근무하는 650여 명의 종사원 중 근속연수와 근무 성적이 우수한 50명을 선발해 2차에 걸쳐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현지 서비스 산업 탐방, 워크숍, 감정 스트레스를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2차 교육은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toto 스포츠토토

"전북, 대구 꺾고 선두 유지할 것" 74% 압도적

축구토토 스페셜 34회차 중간집계
2경기 울산·3경기 서울 승리 예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는 25일 열리는 2019시즌 K리그1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스페셜 34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결과, 참가자의 74.06%가 전북-대구전(1경기)에서 리그 선두 전북의 우세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양팀의 무승부 예상은 17.48%로 집계됐고, 원정팀 대구의 승리 예상은 8.45%를 기록했다. 최종 스코어 예상에서는 2-1 전북 승리(19.43%)가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3-1과 2-0 전북 승리가 각각 14.90%와 12.08%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울산과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은 29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승점 63점으로 울산(60점)에 3점차의 리드를 유지하고 있다. 김신욱이 떠났지만 로페즈와 문선민, 그리고 이동국이 여전히 화려한 공격진을 이끌고 있다. 지난 맞대결에서 대구에게 4-1의 대승을 거둔 자신감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점 확보를 위한 전북의 총력전이 기대된다.

2경기 수원-울산전에서는 전북을 추격하고 있는 2위 울산이 63.55%로 다수의 표를 얻었다. 상위 스플릿 확보를 위해 갈 길이 바쁜 수원은 13.50%에 그치며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리그에서 울산과 전북, 서울전에 이어 FA컵 화성FC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은 최근 팀의 주포이자 득점왕 후보인 타가트가 부상을 당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상위 스플릿을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수원이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승점 2점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이번 상대는 최근 6경기 동안 이겨본 적이 없는 울산이기 때문에 수원으로서는 힘든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경기 서울-경남전에서는 축구팬 과반수 이상인 56.96%가 홈팀 서울의 승리를 응원했다. 어느덧 리그 10위로 하위권에 떨어져 있는 경남은 17.04%에 그쳤고, 나머지 26.01%는 무승부를 예상했다. 최종 득점대의 경우 2-1 서울 승리가 15.25%로 1순위를 차지했다.

"삼성, 갈 길 바쁜 선두 SK에 고춧가루"

야구토토 스페셜 108회차 중간집계
참가자 51% 원정팀 삼성 우세 전망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케이토토는 25일 열리는 프로야구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108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50.51%가 SK-삼성(2경기)전에서 원정팀 삼성의 우세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홈팀 SK의 승리 예상은 33.62%로 나타났고,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5.87%를 기록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SK(4~5점)-삼성(8~9점)이 5.70%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SK(0~1점)-삼성(2~3점)과 SK(2~3점)-삼성(4~5점)이 각각 5.66%와 5.03%로 그 뒤를 이었다.

리그 순위와 상대전적만 보자면 SK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지만, 19일 홈에서 열린 두산과의 더블헤더 경기에서 모두 패하는 등 '불안한 1위'에 머물고 있다. 타선의 긴 침체도 경기력 하락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롯데-두산(1경기)전에서는 롯데의 승리 예상이 54.47%를 차지했고, 두산의 승리 예상은 33.71%를 기록했다. 마지막 NC-한화(3경기) 전 투표율에서는 한화 승리 예상(48.50%), NC 승리 예상(36.16%), 그리고 양팀의 같은 점수대(15.34%)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NC(2~3점)-한화(4~5점)가 7.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토토 비대면 판매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 포상금 지급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비대면판매에 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만일 스포츠토토 판매점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발권 행위나 비대면판매 현장을 목격 또는 비대면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들은 이메일(singo@ktoto.co.kr)로 비대면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가담 인원 및 발매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24일 "건강한 스포츠 레저문화를 지향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경우 건전한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판매는 자명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사이트(https://www.sportstoto.co.kr/) 및 베트맨 사이트(http://www.betman.co.kr) 공지사항 및 스포츠토토 고객센터(1588-49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